

# 영상과 음악이 흐르는 '1000일간의 제주'

4년 동안 촬영한 제주도 곳곳 밧길 닿지 않은 풍경에서 신선한 영화적 체험을 이끄는 영화 '오버 데어'가 개봉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오버 데어'는 단 한 줄의 대사나 자막도 없이 영상과 음악만 흐르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44분 동안 스크린에 띄워지는 제주도는 흔히 생각하는 '휴양지' 이미지가 아닌 황량한 섬의 모습이다. 제례에 쓰이는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가믈란' 소리와 건조한 현악, 무속적인 창 소리로 꾸며진 배경음악이 긴장감을 더한다.

장민승 감독과 정재일 음악감독을 지난달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났다. 이날은 5·18의 아픈 역사를 가진 뜻깊은 곳에서 위로와 치유를 전하고 싶다는 장 감독의 요청에 따라 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서 상영회가 준비되었다.

작곡가 겸 연주자인 정재일 감독은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옥자' 등 영화음악을 만들고 가수 박효신의 '야생화' 등 음반에 참여했다. 13살때부터 음악을 시작한 그는 10여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연주·작곡 실력을 인정받아 '천재 뮤지션'으로 불렸다.

영화는 장민승 감독이 콘셉트를 짜고, 정재일 감독이 음악을 만드는 식으로 제작됐다. 장승민 감독은 충분한 사진·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000여일 동안 한라산을

부지런히 올랐고 모두 1000TB(테라바이트) 용량의 자료를 모았다.

"처음엔 자연 훼손이나 난개발로 사라져 가는 제주도의 풍경을 노련하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출발했어요. 그러다 자연이나 날씨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소로 가득한 자연을 직접 마주하게 됐죠. 기상이 안 좋을 때, 위험한 시간대라도 몸으로 직접 부딪쳐야만 제주도에 숨겨진 세계를 밝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사람의 밧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정재일 감독은 오직 44분이라는 곡의 길이와 영화 음악이라는 형식, 그리고 사진·영상 자료만 가지고 작곡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 영상 자료를 받아 보고는 충격을 휩싸였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주도가 아니라 마치 먼 곳, 우주 어딘가 위험한 곳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 받은 느낌을 살려 어머니와 같은 '여성', 음악의 근원인 '종교', 제주도 곳곳에 녹아든 세월과 이야기의 '제작'을 살려 제의적이고 무감정한 곡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작업은 단연 '오버 데어'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는 제 인생에 가장 뜻깊고 인상적인 작업이었어요. 평소엔 생계를 위해 음악을 만들다 보니 작곡가

44분 다큐영화 '오버 데어' 개봉

'촬영' 장민승·'음악' 정재일 감독

제작기간 4년... 광주극장서 상영

정감독, 봉준호 '옥자·기생충' 참여

스스로의 이미지를 투영하기보다는 의뢰인들이 요구한 이미지를 생각해오. 하지만 장 감독은 제 음악에 대해 '갑나라, 배나라' 하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제멋대로, 좋게 말하면 저만의 프리즘을 거쳐 생명력을 불어넣은 음악을 만든 거죠. 제 생각을 오롯이 투영한 음악을 통해 제 이름을 크레딧에 올렸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장민승 감독은 다양한 작업을 거쳤다. 영화 '주먹이 운다' '달콤한 인생' 등의 영화 음악 제작으로 시작해 가구 디자인, 사진 예술가 등을 거쳐 지금은 시각예술가로 남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열린 '플랫폼 인 가무사'부터 '장민승+정재일'이라는 이름으로 11년을 함께 작업한 사이이다. 이들의 인연은 2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장민승 감독이 고등학교 1학년, 정재일 감독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시절, 음악잡지에 실린 밴드 단원 모집 공고에 정 감독이 지원한 것이 첫 만남이었다. 오래지 않아 각자의 갈길을 가지며 헤어졌다가, 1997년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음악 작업을 함께하며 만남이 이어졌다.

"음악에서 정 감독을 따라 올 사람은 없죠. 그와의 작업은 딱 맞는 옷을 입은 듯 편안합니다. 서로가 가진 음악적 신뢰 덕에 아날까 싶어요. 영화 '오버 데어'는 낯설다면 한 없이 낯선 영화가 될 거예요. 색다른 느낌으로 관객이 행복을 느꼈으면 합니다."

장민승 감독의 말에 정재일 감독은 "영상이 주인공이고, 음악은 조력자 입장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낮췄다.

정재일 감독은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해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볼 만큼



영화 '오버 데어'를 제작한 정재일 음악감독(왼쪽)과 장민승 감독.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over there



1000일간 제주도 풍경을 담은 영화 '오버 데어'

## 한일 국제교류전, 30일까지 금봉미술관

유무상생



이선춘 작 '꿈을 이끄는 소녀'

'한국과 일본의 전통 채색화를 만나.'

광주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이 6월 기획 전시로 전통채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작가를 초청해 국제 교류전을 연다.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무상생(有無相生)'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적 조형관이 점차 변화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미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유교, 불교,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발전해온 양국의 교류를 모색해 보는 기획전이다.

전시작들은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수없이 많은 붓질로 완성된 작품들로 아교를 녹인 물에 정성스레 물감을 풀어 세필과 평필로 섬세하게 작업, 채색 작품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한국작가는 고명희, 고선경, 권귀민, 김경현, 김금애, 김민, 김범수, 김영심, 김은희, 김재민, 김종기, 김혜원, 성명진, 이계길, 이선춘, 이지연, 정경아 등 17명이 참여한다. 일본에서는 가와세 요코, 기타자도 게이이치, 구리무라 히로시 등 일본 작가와 일본에서 활동중인 한국작가 정수향·이혜순 작가 등 모두 11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062-269-98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청년작가 릴레이전, 16일까지 드영미술관

일탈



김성결 작 '불편지'

올 한해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작업하는 지역 젊은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열고 있는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두번째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2019년 청년작가 릴레이 기획 전시 소소한 이야기II-일탈' 전에는 김성결·이대애·조하늘·양세미 작가를 초청했다.

4명의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기법과 재료의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다소 기괴한 인물 군상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표현해온 김성결 작가는 '불편지' 등의 작품을 통해 인물이 화면을 짙게 채웠던 기존 그림과 달리 배경을 화면속으로 끌어들이 좀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영하는 사람과 수영장 등의 모습을 장지에 채색화로 담은 양세미 작가의 작품 'Under water' 시리즈는 푸른 물빛 속에서 울려다 보이는 인물의 모습에서 불안한 현대인의 삶을 캐치할 수 있다. 또 이대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주 소재인 '돼지'와 그 돼지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상의 세계를 화려한 색감으로 풀어낸 '유토피아'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